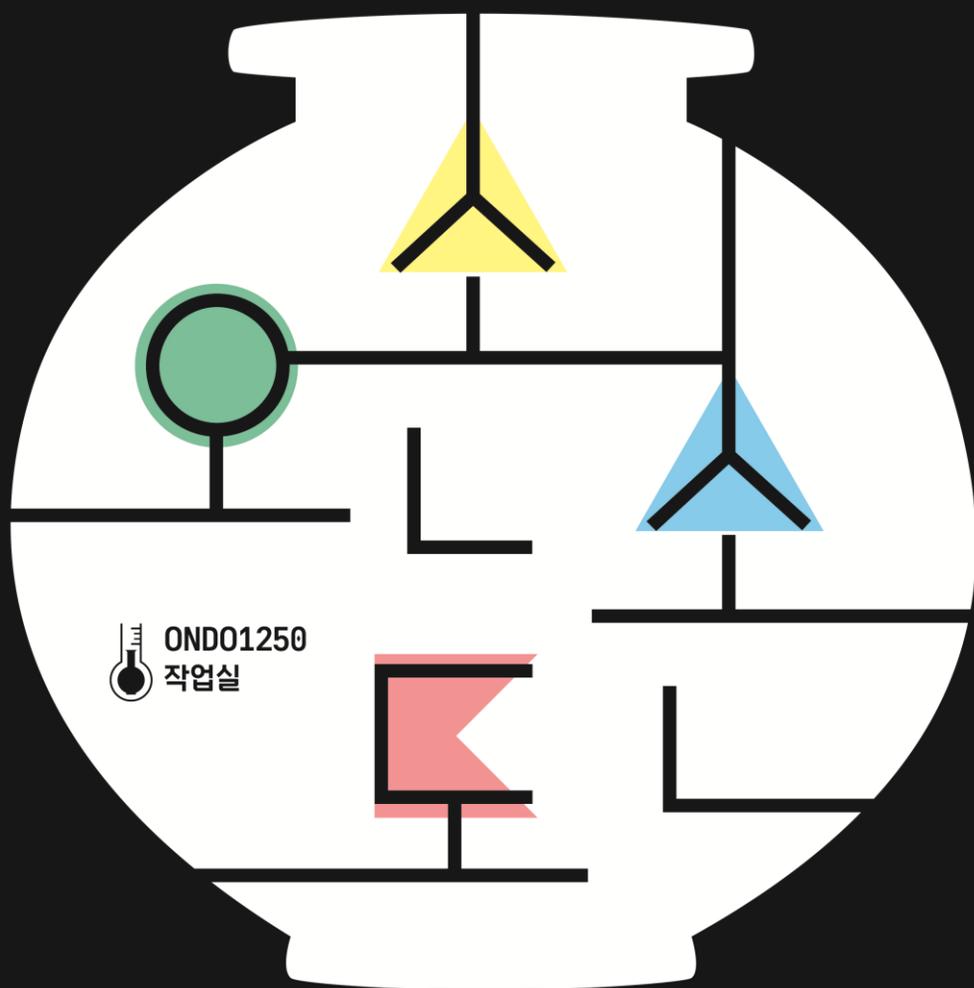


五손陶손展

다섯 명의 도예 작가의 다섯 빛깔 도자기



오손도손 (五손陶손)

다섯 명의 도예 작가의 다섯 빛깔 도자기

김가영 박이안 박종현 이현주 최지선

2023. 08.09.(수) - 08.21.(월)



CONTENTS

기획의 글

온도1250 대표 박종현

평론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책임큐레이터 김예성

작가 및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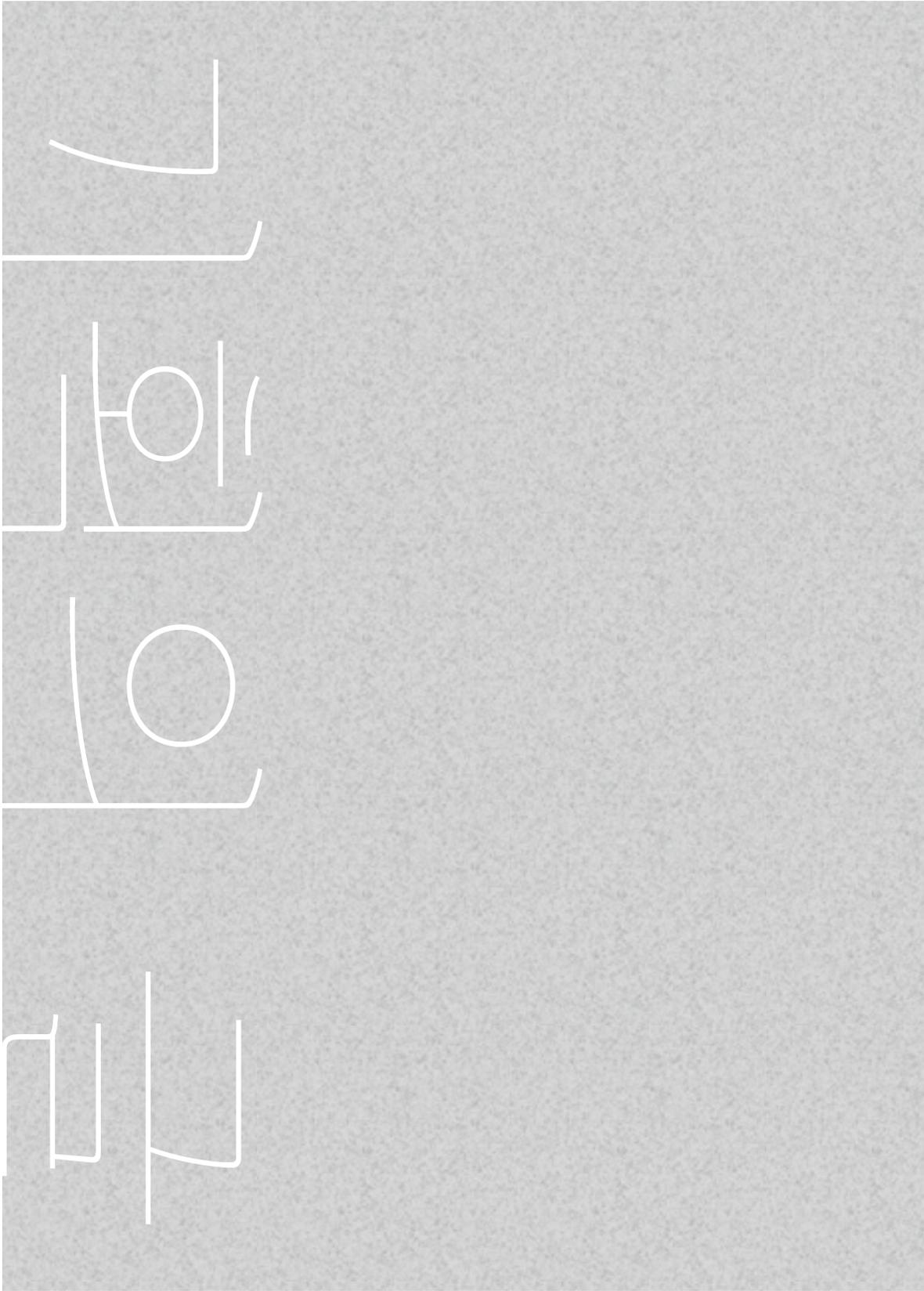
김가영

박이안

박종현

이현주

최지선



오랜 시간 작업실을 운영해오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일에 치우쳐 간혹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흙도 고운 빛을 내는 유약도 뜨거운 열정으로 작품을 구워 주는 가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함께 작업하시는 작가님 들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쉬워해주는 함께 작업하는 작가님들, 작품을 만들 때는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전시키는 일을, 쉬는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즐거움을 나누는 일을 함께 합니다.

물레 돌리듯 둥글둥글 함께 작업하시는 작가들과 같이 뜻을 모아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각양각색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업과정에 언제나 참고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빌며...

기획자 ONDO1250 대표 박종현

0 11

1 11

오손도손 전 도예공방 '온도 1250'의 5인 도자전

근대이전에는 도자 만드는 곳을 '가마'라 불렀다. 흙을 구워 도자를 완성하는 설비이며 '자리'인 가마는 하나의 장소이며 동시에 그곳의 공동체를 의미했다. 근현대에 작가주의적인 도예 개념이 형성된 후 각 지역의 도예공방은 '가마'를 대신하게 된다. 도예공방에서 공동체는 해체되어가고 도예가 개인 혹은 개인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의미하며 그 안에서 행해지던 작업은 공동체의 역량이 아닌 각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스승과 제자, 전공자와 취미생으로 이루어진 충북 증평에 자리한 이 크지 않은 공예 그룹은 그들의 진솔한 공예 이야기를 도자 안에 담아낸다. 도예공방 '온도 1250'의 다섯 명은 오늘날의 공예 공동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온도1250'의 전시 '오손도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공예 공동체, 오늘과 내일의 공동체의 가능성이 발견된다. 그들은 전공과 경험의 여부를 넘어, 이번 전시에서 함께할 수 있는 각자의 작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도우며 느슨한 유대 안에서 작업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고, 취향을 공유하며 도예가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

도예공방 '온도1250'에 모인 작가들은 좋은 멘토를 만났다. 도예가 박종현은 캐스팅에도 물레에도 능하지만 배움을 얻기 위해 모인 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업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공방의 중심에 있는 작가는 관조의 시각을 향아리에 담아낸다. 성형부터 번조까지 '가마의 시간' 끝에 그가 안은 결과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의 마음인 '관용,' 그 결과, 품 안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을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대호'와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

온도 1250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성장하고 있는 도예가 김가영이 있다. 물레 작업에 입문한 지 1년여 만에 기능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작가는 기능의 연마를 통해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예쁜 곡선을 만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다. 항아리는 처음 눈에 닿았을 때의 선과 뉘앙스가 작품의 서사를 대신하기에 작가는 언젠가 자신만의 톤이 담긴 항아리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이현주와 최지선은 유백유를 이용한 프랑스 풍의 도자를 제작하고 있다. 이현주 작가는 새와 여인의 흉상, 짝을 맞춘 그릇들, 전을 찢어 장식한 오브제 등 자신이 추구하는 서정적인 분위기의 생활도자를 만든다. 희고 광택있는 유약을 사용하여 거친 태도를 덮고 도자기의 기능성을 완성하는 것은 심미적인 목적과 함께 일상의 적극적인 쓰임을 염두에 둔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최지선 작가는 도자의 기능성에서 앞서 형태적 요소인 ‘굽’에 집중했다. ‘굽’은 기물의 중심을 잡고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래에 감춰져 있어 주목받지 못한다. 작가는 기물의 이 소외된 부분에 주목하여 그 형태와 연상되는 언어를 작품의 주제로 가져왔다. 작업에서 ‘굽(foot)’은 ‘힐(heel)’이 되어 다양하게 변주되고 장식적 요소들이 강화된다. 또한, 기물 하단의 힐의 형태에 맞춘 상단의 열린 형태의 조형은 꽃을 위한 기능에 더해 만개한 꽃과 꽃봉오리를 연상케 한다.

박이안 작가는 도예 기법을 익히고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를 실험하면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예고한다. 장식적인 오브제와 화병의 기능을 함께 담은 ‘베어베베’ 시리즈는 자신이 추구하는 도자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오손도손 전〉에서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온도 1250’의 자율성과 공예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도자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서로의 영향과 자신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공존하는 지역의 공동체가 집단지성과 집단창작의 시대로 나아가는 미래에 하나의 가능성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책임큐레이터 김예성

한국도자재단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본태박물관 서울사무소 학예실장을 거쳐, 공예매개인력양성 매니저, KCDF갤러리 큐레이터로 활동해 왔다. 이화여자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책임 큐레이터를 맡고 있다.

김가영



2022 중앙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

작가활동지역 : 충청북도 증평

M: 010-8739-9230

E: design-gy@naver.com

인스타 : @gayoung680

수상

2021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 도자기 금메달

2022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 도자기 금메달

2022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우수상

2022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입상

2022 해남 차도구 공모전 입상

2022 남원 국제도예캠프 물레대회 우수상

2022 현대도예 20인展 최우수상

2023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 도자기 금메달

2023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입상

자격

2021 도자공예 기능사(고용노동부)
2019 생활도예 전문 지도사 2급(문화체육관광부)

전시

2020 오왓이스展
2021 제1회 도예나라 국민展
2022 디자인대학 연합전시회 옥타린展 ‘연’
2022 현대도예 20인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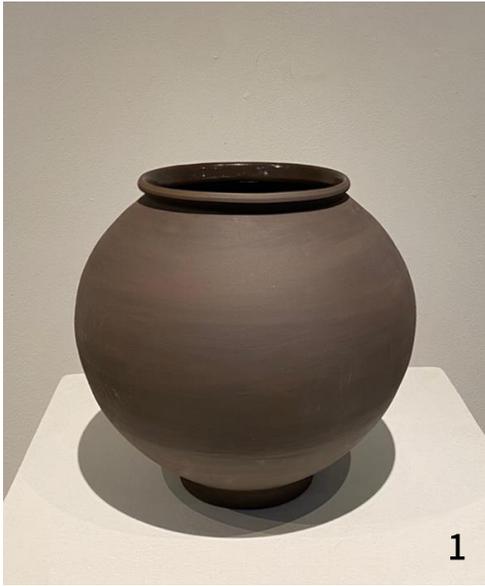
<백자항아리>, 2023, 물레성형, 350x350x360mm

항아리를 배우고 싶다는 일념으로 충북 증평으로 내려와 3년째 항아리를 빚고 있습니다. 처음엔,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크기의 흙을 다루기 위해 수련하고 그 후엔 항아리의 형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요즘엔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항아리의 선을 찾고자 오랜 시간 공들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구워볼 만한 항아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항아리를 만들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불속에 들어간 항아리는 예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내리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의도된 미숙함이다. 누군가는 멋으로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불속에서 뜨거운 시간을 버텨내고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항아리는 작업자의 수많은 땀과 눈물이 배인 수련의 시간과 한없이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항아리를 향해 가는 저의 땀과 눈물이 배인 시간을 공유합니다.



1. <흑자 항아리>, 2023, 물레성형, 325x325x305mm
2. <청자 항아리>, 2023, 물레성형, 280x280x250mm
3. <백자 항아리>, 2023, 물레성형, 340x340x360mm
4. <흑자 항아리>, 2023, 물레성형, 330x330x335mm

항아리는 딱 보았을 때 보이는 곡선과 분위기로 스토리를 대신하기에
예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둥근 바디와 함께 직선 요소의 전과 굽이 주는 예리한 각도가 시원해 보이도록,
그리고 전체의 형태를 방해하지 않고 잘 어우러지도록 고민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저의 땀과 고민들이 담긴 흔적들입니다.
예쁜 선의 항아리를 찾기 위해 시도한 선들, 다양한 항아리의 라인들
그리고 각기 다른 흙을 사용하여 다양한 분위기와 흙의 매력들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박이안



1988년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연희 전공)



<베어베베(Serise 01)>, 2023, 코일링, 170x100x250mm

Post Corona New Normal for Space

코로나19 이후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느때보다도 급격하게 일어났다.

체류시간의 극적인 증가로 집은 더 이상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다목적 공간이자 자아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공간을 꾸미는 데에 비교적 접근이 쉽고,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모두 갖춘 리빙 오브제의 대표적 사물은 화병일 것이다. 화병은 ‘오브제’의 명칭에 걸맞게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이번 전시는 무엇을 꽃는다는 목적 없이도 화병 자체로 애정이 가고 다정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취향에 맞는 작은 소품으로 공간이 변화하는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



<베어베베(bear bebe Serise 02)>, 2023, 핸드빌딩, 123x170x215mm



<베어베베(bear bebe Serise 03)>, 2023, 핸드빌딩, 148x83x55mm

백조형토를 사용해 코일링으로 손작업한 오브제 화병입니다.
흙 자체의 질감과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 유약 처리 없이 단벌 소성 하였습니다.

<화병의 면면(面面)>, 2023, 물레성형, 120x120x255mm

백자토를 사용해 물레 성형 후, 면치기 기법을 사용하여 즉흥적이고 비정형의 각을 준 화병입니다. 투명유 기반의 옥빛 색유를 사용했습니다.



백자토를 사용해 물레 성형한 화병입니다. 유려한 곡선형 화병에 꽃, 식물 덩굴, 깃털 등 자연물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을 더했습니다. 투명유 기반의 옥빛 색유를 사용했습니다.

<아르누보(art nouveau) 2023, 물레성형, 145x145x260mm

박종현

작가활동지역 : 충청북도 증평
연락처 : 휴대폰 010-9110-7559 / 이메일
pjh0055@naver.com
인스타 : @ondo_pottery / @ondo1250



전시

개인전 2회 회원전 다수

수상

- 2014.10 전국 기능 올림픽 '도자기' 종목 (동메달)
 - 2018.06 충북 미술대전(우수상)
 - 2018.07 강진군 주최 전국 물레 성형 경진대회 (금상)
 - 2018.09 JB Awards 2018 전라북도 공연 예술 패션 공로자(국회의원 표창)
 - 2019.06 충북 미술대전(특선)
 - 2019.09 강진군 주최 전국 물레 성형 경진대회 (최우수상)
 - 2020.09 현대미술대전 공예(대상)
 - 2021.06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은상)
 - 2021.06 충청북도 미술대전 (대상)
 - 2021.10 남원 국제 도예 캠프 물레경진대회 (우수상)
 - 2022.06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동상)
 - 2022.10 남원국제도예캠프 물레대회 (대상)
 - 2022.12 '제2회 철화분청사기 산업이 되다' (우수상)
 - 2023.06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금상)
- 외 다수 수상

작품소장

사단법인 한국 현대 문화미술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예술의 전당
충청북도청
공주 아트센터 고마

경력

2003년 부산 메트로 폴리스 파타일 제작 참여
2005년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 '정조능행 반차도 제작' 참여
2015년 증평군 은행정 도깨비 마을 조성사업 '도깨비' 제작
2020년 증평군 여성친화거리 조성사업 도자기 벽화 총괄 제작
충청북도 지방 기능 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전국기능 올림픽 충북선수단 지도교사 역임
현재 "오늘도 1250°C 온도" 대표

자격

2002년 4월 도자공예 기능사(고용노동부)
2018년 3월 생활도예 전문 지도사 1급(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NCS 기반 도자 공예 현장 전문가(산업인력관리공단)
공예분야 세부 직무분야별 전문위원(국가기술포럼 정책심의위원회)
충청북도 미술대전 추천작가 선정
충청북도 우수 공예인 선정



<대호_관점과 직선과 곡선>, 2020, 물레성형, 700x700x650mm

대호의 뒤틀림은 관용이며, 그 크기는 포용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향아리 작업을 해오며 알게 된 사실은 작업 중엔 너그러운 관용과 포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커다란 발을 겹쳐 올리는 순간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 흔들림을 막고, 한치가 아닌 1mm의 오차도 없이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리하고, 예민한 작업 끝에 나온 향아리도 불기운에 눌러 기울고 가라앉습니다.

가마에 넣고, 불을 올리고 다시 가마의 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모든 시간을 견디고 불에서 나온 작품을 볼 때 필요한 것이 관용이고, 나온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보아도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려 노력한 저의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을 선별하여 올립니다.

느긋한 감상 뒤, 고견과 질타 부탁드립니다.



<관점_직선과 곡선>, 2023, 물레성형, 460x460x475mm



<관점_직선과 곡선>, 2023, 물레성형, 425x425x445mm



<덤벙문 분청 항아리>, 2022, 물레성형, 360x360x370mm



<덤병문 분청 향아리>, 2022, 물레성형, 430x430x440mm

이현주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청주 트레조 세라믹 대표



<사랑을 담다>, 2023, 판상성형, 코일링, 가변사이즈

1250도의 고온을 견뎌야 비로소 제 빛을 발하며 완성되는 도자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

불속의 시련을 견디며 흙 속의 불순물과 유기물들은 모두 타서 사라지고 흙은 단단한 자기로 변모한다.

그리고 부드러운 흰 유약이 흙의 어두운 색깔과 거친 부분은 덮고, 반짝거리며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어 준다.

이 유약은 도자기가 오염되거나 물드는 것을 막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도록 도와 준다.

그리고 음식을 담는 도구로 완전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

누구나 그렇듯 한 번쯤은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가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고, 그 시기에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으며 마음이 편안해졌고 견디고 일어나 보니 더 견고하고 단단해져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렵지 않고 즐겁고 편안한 장소에서 본인의 취향을 담은 내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 그릇은 편하게 쓸 수 있게 가까이 두어 사랑받는 그릇이기를..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요리하고 그릇에 담아 대접하고 행복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다.





최시선



- 2001.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졸업
- 2021.05. 도예입문
- 2022.10. 남원국제도예캠프 물레경진대회 입선
- 2023.04.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도자기 은상
- 2023 도자공예기능사 취득

Flower and Heels

굽은 도자기 유약의 사용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물의 아랫부분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높은 굽을 가진 기물도 기원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에 비하면 이름도 굽다리, footed 정도로만 불릴 뿐이었다.

상대적으로 기물의 몸체와 입구, 손잡이 형태의 다양함, 표면의 화려한 장식에 비하면 눈에 띄기 어려웠거나 도자기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거라 추측된다.

이런 굽이 섬세한 정형의 과정을 거치면 얼마든지 심미적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

기물을 받치는 용도 외에 장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굴곡과 미세한 선들을 만들고, 각 요소들의 최적의 비율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명칭도 단순한 기능을 위해 쓰였다가 17세기부터 소재와 장식이 다양해지고, 디자인에 따라 세분화된 힐(heel)처럼 굽도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원래의 명칭인 'footed'가 아닌 'Heel'로 네이밍했다.

이런 굽을 가진 기물의 물건을 담는 상부는 꽃에서 착안하였다. 꽃봉오리, 만개한 꽃의 여러 형태를 아주 단순화해 그릇에 적용했다.

그리고 높은 굽을 가진 화병과 낮은 굽을 가진 화병까지, '꽃을 통한', '꽃을 위한' 작품들이다.



**<봄베 굽 화병 Curve Vase for Flower with Bombe Heel>,
2023, 물레성형, 185x185x255mm**

굽이 있는 화병으로 이번 테마인 'Flower and Heels'의 메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의 'Bombe'라는 둥근 모양인 디저트의 이름을 따라 굽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그 앤 다트 저그 Egg and Dart Jug>, 2023, 물레성형, 200(손잡이포함)x115x185mm

둥근 꽃봉오리 형태를 일부 차용한 저그입니다.
가늘고, 무늬가 새겨진 손잡이가 특징입니다.
손잡이의 무늬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한 'Egg and Dart(난촉)' 무늬입니다.



<할머니를 위한 봄베 굽 사탕 볼 Candy Bowl for Grandmother with Bombe Heel>, 2023, 물레성형, 220x220x135mm

할머니를 떠올리며 만든 굽이 달린 볼입니다.
좋아하시는 캔디를 가득 넣어 두고 하나씩 꺼내드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들었습니다.
내부의 장식은 백합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하부에는 프랑스의 'Bombe'라는 디저트의 둥근 모양을 닮은 굽이 달려있습니다.

**<봄베 굽 사자 화병
Lion Vase with Bombe Heel>,
2023, 물레성형, 160x160x220mm**

화병을 기획하면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화병으로,
사자 부조 장식은 수호와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의 'Bombe'라는 둥근 모양인 디저트의
이름을 따라 굽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엣지 굽 디저트 볼
Dessert Bowl
with Cutting Edge Heel>,
2023, 물레성형, 100x100x80mm**

아이스크림, 요거트, 작은 과일 등
디저트를 담을 수 있는 굽이 달린 볼입니다.
날카롭게 깎은 가는 선으로 장식한 굽을 가
지고 있는 볼입니다.

채
토
바
개
러
러
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층